

美 민주·공화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에 엇갈린 반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미국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크게 높인데 대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른 데 대해, 자신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표현을 피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대표는 “북한 지도자는 좋게 표현해도 변덕스럽다는 것을 모두 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외 민주당 간사인 벤 카든 의원은 성명을 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동맹을 결집하며, 국제적 지도력을 구성하는 데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위협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침착하고 종합적인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외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전략적인 외교를 강조할 기회를 낭비해 버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진인 다이안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전쟁을 위협하는 무대로 사용했다”며,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과장된 위협에 심각하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테드 류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다른 나라를 전멸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WP는 “이날 북한 전문가들은 인용한 해설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을 언급, ‘김정은은 정권은 매우 분명하고 직설적이었으며, 특히 연설의 배이는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비판한 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사시 북한을 ‘완전파괴’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로 인해 오히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더 하고 비핵화 합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북한 전문가들은 인용한 해설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을 언급, “김정은은 정권은 매일 국민에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서 “이제 북한 국민은 이런 말을 다른 출처로부터 듣게 됐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은 정권은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외부 정부를 차단한 채 미국의 위협이 무기로 필요한 모든 이유라고 국민에게 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평양뉴스 제공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 쪽에 있는 꼬마 녀석에게 누군가 적나라하게 말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데이빗 퍼듀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위협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경한 발언에 매우 감명 받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티브 므루신 세무장관은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의 악랄적인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완성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유엔 연설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최고였다”고 평가했다.

볼튼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고 직설적이었으며, 특히 연설의 배이는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비판한 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유엔 연설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최고였다”고 평가했다.

볼튼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고 직설적이었으며, 특히 연설의 배이는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비판한 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사시 북한을 ‘완전파괴’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로 인해 오히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더 하고 비핵화 합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북한 전문가들은 인용한 해설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을 언급, “김정은은 정권은 매일 국민에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서 “이제 북한 국민은 이런 말을 다른 출처로부터 듣게 됐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은 정권은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외부 정부를 차단한 채 미국의 위협이 무기로 필요한 모든 이유라고 국민에게 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평양뉴스 제공

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한국민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대서양협의회(애틀랜틱 카운슬)가 시상하는 2017 세계시민상을 받고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들었다”며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제72회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인트라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이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바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진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촛불 혁명을 통해, 헌법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언급 했다.

그러면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

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전 세계에 보여줬고 나에게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 사실을 말해줬다”며 “나는 이 사실이 자랑스럽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은 여러 달에 걸쳐 1천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행동이었지만 평화롭고 문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평화의 힘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촛불시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대서양협의회가 수여하는 세계 시민상은 2010년 이래 세계 시민의식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에게 주는 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북핵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 세계시민상을 수상하게 됐다. 그동안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세계은행 총재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한 리더들이 수상해 왔다.

그러면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사진 사퇴”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3개 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판결로 군기강 체계 외해”와 “군 동성애 허용으로 장병건강과 군기강 외해” “법원내 사조직으로 법체계 무력화” 등을 근거로 김명수 후보의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했으며, 김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21일 낮 표결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제공

예장통합 “동성애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예장통합 제102회 정기총회가 양재동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셋째 날 한법위원회 보고를 통해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한종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및 신학대학 교직원이 될 수 없다”(한법 시행규정 제26조 ‘직원 선택’)는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 “교회 및 노회 수습” 7항에서 ‘총회에서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시행규정 제33조)에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 당사자는 수습 노회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문장 을 삽입했다. 또 총회 특별재심재판국 및 재심재판국, 기소위원회 등은 폐지했다.

특히 총회재판국 보고와 관련, 일부 재판 건이 공정하지 못해다는 지적에 따라 조직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

국 총회재판국 부원들 가운데 12년조는 규정이 신설됐다.

과거 논란이 됐던 연금재단 보고는 총 대들의 기립박수로 무난하게 통과되었으며, 한국기독공보 보고에서는 안홍철 목사

가 신임 사장으로 인준 받고 직전 사장 천영호 장로는 회사 운영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아 ‘영예로운 퇴진’을 했다.

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는 ‘요가 와 마술 금지’ 연구 결과가 보고대로 받아들여졌다.

영세 등 로마 천주교 연구를 위한 위원회가 조직될 예정이다. 국내선교부가 보고한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도 허락 받았으며, 사회봉사부가 내놓은 ‘목회자 및 교회의 직원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청원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위원회 조직’ 청원 건도 허락됐다.

사회봉사부는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지적하고,

“목회자에 의한 성적 비행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양무리의 모범이 돼야 할 목회자의 행위 규범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라며 해당 건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노회는 노회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봄 노회부터 격년으로 ‘성원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교회는 교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용국 기자

“종교인 과세가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할 것”

기윤실과 장신대 공동으로 목회자윤리세미나…고재길 교수 발표

종교인 과세 문제가 교계 핫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20일 낮 장신대에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와 장신대 교회와사회연구부가 공동으로 “목회자의 납세와 경제윤리”란 제목의 목회자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재길 교수(장신대,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부소장)는 “종교인 과세와 교회의 공적 책임”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종교가 사적 차원만이 아니라 공적 차원을 지닌다고 보고, “종교기관은 자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를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를 포함해 그 어떤 종교단체도 자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를 뛰어넘 수 없으므로,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은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그 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납세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한 오늘의 현실은 교회의 공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목회자 납세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과 윤리적인 실천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교수는 “종교인 납세의 실천이 (교회의) 추락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고, “교회는 종교인 납세의 근거를 신학적인 관점(공공신학, 기독교윤리학)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신교 내부에서 목회자 납세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

교인 과세입법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교인이 근로소득이 세율 상 차이가 많이 나는 기초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이는 종교인에 대한 특별대우이고 일반시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조세형편성과 사회통합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회와 정부 간 대화와 토론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고 교수의 발표 외에도 신기형 목사(이한교회) “목회자의 경제윤리”란 주제로 발표했다.

조은식 기자

예장합동, 총신법인이사 총대 천서 제한 타결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 천서가 제한된 총신 법인 이사들의 천서가 탈결되었다. 총회 세째날 오전 회무 중에 총신 법인이사 4명이 총대 천서가 허락되었고, 이어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승동 목사의 총대 천서도 탈결되었다.

김 목사는 크리스천포커스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이사직은 “총회에서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추천하에 합법적으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천서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

다.

이날 총회 회의장에 입장한 김 목사는 총대 앞에서 “지난 회기에 총신 재단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선고지에 가서 불가한 일인데 (마치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처럼) 총회가 성명서를 발표하여

총회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 이제라도 총회와 협력하여 총신 문제를 타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신 법인 이사들의 천서 문제는 타결됨으로써 총신 문제의 문고가 터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총회장과 이사회가 한마음으로 총신 문제를 타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크리스천포커스 제공

설교

주를 바라봅니다 (히12:1~2)

[이브리서]

12장 1-2절]

1. 이어르

로 우리에

게 구름 같

이 둘러싼 허

다한 증인들

이 있으니 모

든 무거운 것

과 암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달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

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개 같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음의 경주를 한

다면,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얼마나 멋있

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주

요 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

며 달리는 사람이 되면, 무엇을 하든 예

수님과 같은 선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

였습니다.

주변의 눈길보다는, 주님을 향한 열망

이 강했던 사람들.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긴박한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강한 믿음을 가

진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움직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나요?

을 한 해는 계속해서 '능력'에 대한 말

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반기 변화산을 시작하면서 능력 있

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삶에는 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올바른 결심이 되

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결단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 여섯 가지 구체적인 '삶의 결단'

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먼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합

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흥미롭게 보았던

것은 '바라보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는 말

로 표현된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보자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자는 '의자' 정도로 생각되는데,

제 마음에 'fix'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보

지 않겠다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

미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삶과 신앙에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확실한 믿음

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가장 훈련한 시기는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사람의 소견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상황에 따라 변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

의 명령에 따르거나 조정당하는 것을 싫

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

과 명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때

문입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이 중요합니

다. 왜냐하면, 지휘관은 모든 현황을 파

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전방에서 싸

우는 군인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적군

과 싸움을 하지만 지휘관은 보이지 않는

적의 동태도 과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세 오래전 일이지만, 미국이 이라크

와 전쟁할 때 가장 무서운 무기가 '전자

폭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파

를 교란해 지휘부와의 교신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게 훈련을 받

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지휘부와의 교신이

끊어지면 공포로 휩싸이게 됩니다. 공포

가 무서운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 상황

판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들어

오면 공포로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저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눈을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소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

해 온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분이 그렇게 사셨고 승리하셨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

라볼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

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

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전쟁'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하지요.

먼저 경주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

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최후 승리를 위

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바라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흔들리

지 않고 한 곳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꾀찌 스케이팅이나 무용수들이 회전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돌면 어지러워서 중심을 잡지 못할 텐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지요. 회전할 때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둘면서도 한 곳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보아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운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무거운 짐과 암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규칙과 그 규칙을 위해 우리가 쓰어야 하는 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경주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인 "무거운 짐" "암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명확하게 여러분을 향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 주님을 명확하게 바라보아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것이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주하며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기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있으나,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

◆신앙생활은 경주(競走)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구 국제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월드비전

자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꼽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웹 mykids.wv.or.kr을 접속해보세요.

mykids.wv.or.kr

월드비전은 아동의 꿈과 희망을 담아온 30년의 전통입니다.

월드비전은 아동의 꿈과 희망을 담아온 30년의 전통입니다.

월드비전은 아동의 꿈과 희망을 담아온 30년의 전통입니다.

월드비전은 아동의

보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신앙을 경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경기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렸을 때, 자차기를 하 고 땅따먹기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땅을 따 먹습니다. 때로는 잘못 금을 그었다고 심을 하기도 합니다. 당장 사생 결단낼 것처럼 치열하게 경기를 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병삼아! 어서 들어와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 치열했던 심을터가 바로 아 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지 아니면 그 금을 다 지우고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경주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주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빨리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 니다.

저도 만나교회 목사로서 시무하는 한 집을 소유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소유로 하는 것 이 아니라 때문입니다. 저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많은 교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러나 그런 것이 나를 얹매이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저는 말씀을 목상하며, 이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 들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경주하는 데 가장 방 해가 되는 무거운 짐, 죄의 문제는 무엇입 니까?

이것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해 결하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쩔 수 없었습 니다.”라는 말처럼 비신앙적인 말이 없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을 구한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밭가 벗고 자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수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 를 조롱하던 아들의 자손이 저주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불끈 솟 는 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삼계명 둘 판을 던져 깨뜨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므로 인하여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 산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므로 인하여, 삶의 오점을 날렸을 뿐 아니라, 자식들이 칼부림하며 피를 흘리는 참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암벽에 향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인생 경주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 이고, 제 자식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지 모 르지만, 어느 순간엔 우리의 삶에 습관이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우 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결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결단 때문에 우리가 치리야 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역설이 있지요. 신앙인의 승리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많고, 땅 많고, 권력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최후에 증명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결코 순례자의 길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참 좋은 찬양인 데, 우리가 바라던 시온성을 바라며 신앙을 지켰던 신앙 선人们的 고백인데, 요즘 잘 부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사는 삶이 최선인지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 멀리 봄은 나의 시온 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 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 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곳 주 복음 전 하리

◆우리의 경주는 릴레이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목상하며, 우리의 경 주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단지 나에게 주어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짧은 생애 가운데 온전한 뜻을 이룬다는 것이 웬지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얼마나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일 우리가 사는 인생과 경주가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경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공평하게 경주를 하게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을 경주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경주가 릴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의 구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시대마다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름시 어려운 코스를 지나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경주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작년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 중의 하나가 자메이카의 우승인 볼트였습니다. 그는 세 가지 종목을 3번의 올림픽에서 우승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에게 인상적인 것은 그가 400m 계주에서 늘 마지막 주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마지막을 제일 잘 뛰고 역전을 만들어 낼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난 올림픽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미국 선수들의 계주였죠. 그들

은 최고였지만 늘 ‘저주’에 걸려 있었습 니다. 바통을 터치할 때 꼭 실수하는 것이죠.

릴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구간을 가장 성실하게 뛰어야 한다는 것 이고,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다음 사람에 게 잘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 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 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 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 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 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 는느라.”

그렇습니다.

내가 담당한 그 구간,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구간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부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책임”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responsibility”인데, “대답한다”라는 “response”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설을 아십니까?

다시 올림픽 400m 계주경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 떤 이에게는 스타트를, 결정적인 승부수를 뛰어야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자에게 승부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무거운 시험과 책임을 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광도 많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릴레이는 세상의 경 주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릴레이는 얼마나 유능하게, 빨리 달렸느 냐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경 주의 1등은 제일 빨리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얼마나 책임 있게 달렸느냐의 문제요, 최선을 다한 사람 은 모두 1등을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 신앙적인 물 음을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서, 직장에서, 이 민족을 바라보며 맡겨진 책임 구간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 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책임 구간이 무엇인가요?”

“가장 성실하게 제 책임을 완수하는 방법 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내가 달려 가야 하는 구간은 나의 욕심으로 가는 구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잠언의 아울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리라 생각합 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 생각합 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물을 수 있을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이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책임 구간이 있다면, 그다음 사람에게 우리의 바통을 넘겨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릴레이 는 잘 넘겨진 바통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뒷사람이 잘 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 하는 이 경주는 함께 달려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이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영광스러우려 면 나의 다음 사람이 잘하는 것을 더욱 기뻐해야 하고, 그다음 사람의 건투를 빌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믿음의 유산을 안고 갑니까?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것 중의 하나 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기도] 마지막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당신이 죽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당신 때문에 하늘나라에 오게 되었노라고 감사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신앙의 유산으로 서 있다면, 또한 그 신앙의 유산, 바통을 넘겨 줄 수 있는 사람 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 음을 주신 일입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할아버지 1명, 할머니 1명, 초등학생 2명이 앉아 있 는 모습에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 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10명 이상 모이고, 주일 학교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50명이 넘 어가고, 어른들이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 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가 열매를 거두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맡겨진 구간을 맡은 이가 잘 달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암모하 며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 알의 기적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알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미련 없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헌신이 없다면, 다음 세대의 열매도 없습니다.

농부는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전화를 받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는 “신영이 엄마”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영이가 갓 나아서 걷지도 못할 때,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신영이 엄마는 아이를 잘 안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했던 아빠도 품을 맞아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끔 묻는답니다. 방에 만 있지 말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이를 안다가 떨어뜨리고 놀란 가슴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을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다시 태어나면 건강한 엄마한

테서 태어나라”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먹이세요. 지금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어라! 신영이라고”

지금 그 아이가 씩씩하게 자라면서 사무엘 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며 저를 보고 열심히 인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엄마를 염려하며 기도제복을 내는 딸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기적을 믿는다면 희망이 생깁니다. 다만 나의 맘은 구간을 성실하게 잘 경주하면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전화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때는 제가 잘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이곳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그리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잘 할 거 여기에서 잘하지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서 뿐만 씨가 그것에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뿐만 씨,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뿌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는 헌신, 믿음으로 책임 있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돌아올 칭찬과 명예, 열매를 바라본다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우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리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십시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리십시오.

책임을 다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씨앗의 기적을 믿으며 기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는 헌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삶에서 점검하며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마도 이번 변화산의 주제가 될 듯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슬람 전문칼럼] 이슬람지하드의 진짜 의미(2)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 교회한장총 이슬람선교 훈련원 원장)

“어떤 이들 이 선지자께 서 타복 전투

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는 지금 작은 저하드에서 더 큰 저하드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데 이 하디스는 출처가 없다.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다. 불신자들에 대한 저하드야말로 가장 숭고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위kipedia 영문판 ‘Lesser vs Greater Jihad’ 참조)

그렇다면 가장 권위 있는 하디스는 저하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기를: 어떤 사람

이 알라의 사도(무함마드)에게 와서 “상급에 있어서” 지하드와 동등한 행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대답하시기를 “그런 행동은 찾을 수 없다”고 대답하시면서 “무슬림 전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우는 동안 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쌀라트(이슬람) 의식에 의한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그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 어디 있겠습니까?”였더니 아부 후라이라가 “무슬림 전사는 그의 말이 긴 줄에 대해서 어슬렁거리면서 풀을 뜯을 때도 그 밭자국마다 상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부카리 하디스 V4, B52, No.43)

이 하디스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부카리의 하디스이다. 한 번 전쟁이 시작되면 그 전쟁이 몇 주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몇 개월씩 걸리는 전쟁도 있다. 그동안 어떻게 쉬지 않고 금식하면서 엉드렸다 일어났다 하면서 쌀라트(이슬람) 의식에 의한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나 금식도 중요하지만 저하드의 중요성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부카리의 하디스에서 지하드와 관련된 것을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안나스 빈 말리이 전하기를: 사도(무함마드)가 “알라를 위해서 오후나 정오에 한 번 나가서 싸우는 것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훌륭하다.”(부카리 하디스V4, B52, No.53)

이슬람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하디스보다는 꾸란의 권위가 훨씬 높다고 하는데 꾸란은 지하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같은 무슬림일지라도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불구자를 제외하고 알라를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싸우는 자들과 집에 앉아 있는 자와는 등등하지 않다. 알라께서는 재산과 생명을 바쳐가며 싸우는 자들에게는 집에 남아 있는 자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실 것이다.”(꾸란 4:95)

이것은 꾸란에 기록된 내용이다.

너희가 비록 싸우기 싫어도 전쟁은 너희에게 부과된 의무이니라. 너희는 유익한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해로운 것을 좋아하기도 하느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라는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꾸란 2:216) 죄영길의 한글 꾸란에는 “싸움은 너희에게 부과된 의무니라”라는 말을 “너희에게 성전이 허락되었노라”라고 번역하고 있다.

언어로는 이란으로 번역된 내용이다. 이란에는 “qatala” 즉 “죽이다 살해하다”와 다른 뜻이 없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의무사항이라는 말은 며살이나 잡고 흔들면서 고함이나 질러대는 싸움이 아니라 목을 자르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는 싸움(꾸란8:12)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죄영길 역 헌글 꾸란에는 “목을 때리고 손가락을 때리라”고 미화시켜 번역해 놓았다.

우리나라처럼 무슬림 숫자가 적은 나라에서는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을 할지라도 용서가 된다는 타끼야(Taqiya)라는 편리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운 줄 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심지어는 꾸란의 구절도 거짓말로 번역해서 그 의미를 미화 시키거나 덜 혐오스럽게 바꾼다. 실력이 없어서 혹은 단어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다. 아랍어 사전을 번역하고 있다. 영문과 이란어로 번역된 어떤 번역본도 “Kutiba A Alaykumu alqitalu”를 성전이 허락되었노라고 번역한 것은 없다. Kutiba는 법령에 기록되었다는 말이다. 무엇이 의무사항으로 기록되었느냐 하면 “alqitalu” 즉 전투, 전쟁이 의무사항이라는 말이다. 이 단어는 “qatala” 즉 “죽이다 살해하다”와 다른 뜻이 없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의무사항이라는 말은 며살이나 잡고 흔들면서 고함이나 질러대는 싸움이 아니라 목을 자르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는 싸움(꾸란8:12)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죄영길 역 헌글 꾸란에는 “목을 때리고 손가락을 때리라”고 미화시켜 번역해 놓았다.

우리나라처럼 무슬림 숫자가 적은 나라에서는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을 할지라도 용서가 된다는 타끼야(Taqiya)라는 편리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운 줄 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심지어는 꾸란의 구절도 거짓말로 번역해서 그 의미를 미화 시키거나 덜 혐오스럽게 바꾼다. 실력이 없어서 혹은 단어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다. 아랍어 사전을 번역하고 있다. 월경에는 이슬람의 사리아에 우선권을 둔다고 OIC(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들이 카이로 선언문을 채택했다.(1990년 8월5일) 그들은 비무슬림들이나 여성들을 교리적으로 차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슬람을 배신한 자를 살려둘 수 없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은 유럽이 망한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문화 정책에서 이슬람은 제외시키는 것이 국익을 위한 자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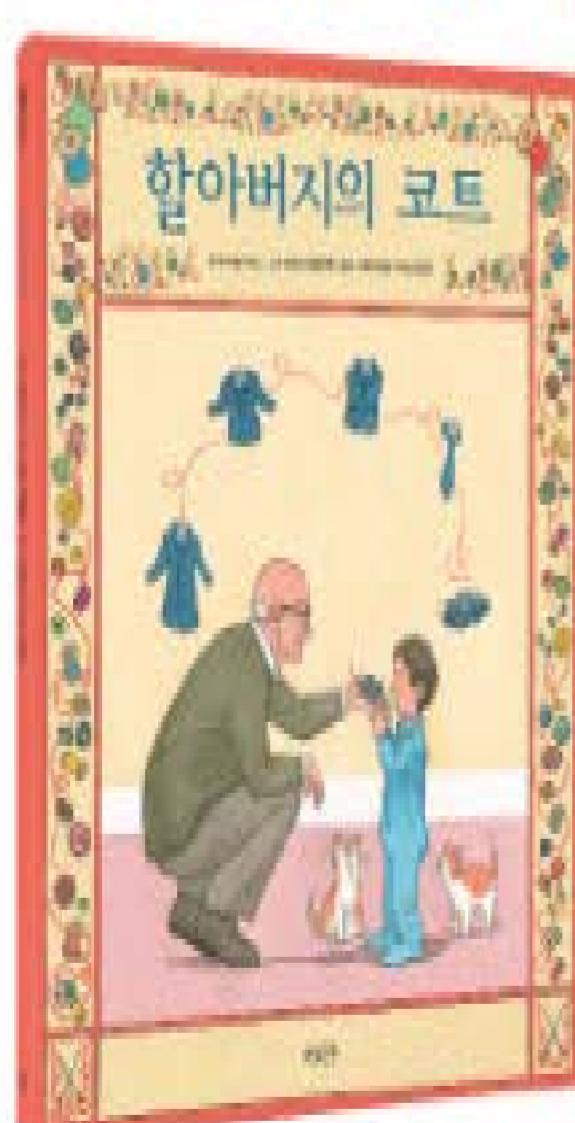
만든 사람이 단어의 뜻을 몰라서 실수로 오역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슬람 학자들은 소위 교수님 혹은 박사님들의 호칭으로 불리는 자식들이지만 이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거짓말을 한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지하드란 불신자들과 싸우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이슬람 교리에 의해서 무슬림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 지하드라면 그리고 그 지하드가 알라를 위해서 불신자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꾸란대로 실천하지는 않는다. 월경 더 많은 사람들은 꾸란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무슬림 집안에서 터어났으니 무슬림이 된 것 뿐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헌신된 무슬림들이나 학자나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진짜 이슬람 교리를 배우게 된다.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고 있든지 아니면 알면 서도 속이고 있든지 둘 중의 하나일 뿐이다. 꾸란은 비무슬림들을 어디서 만나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쿨 라이브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 책'

이곳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끈 힘을 지탱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제,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죠끼를 만들고, 그 죠끼로 넥타이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이렇게 의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아침고, 오전되고, 물풀았던 것도 소중이 다하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선명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 보자기 미디어 아트제작



한국 서점 및 문화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토서 문화인-기자-709